

# 절세의 애국자, 조국해방의 은인



1945년 8월 15일!  
이날은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치욕스러운 압제와 수난의 력사  
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제생의 고  
고성을 울린 사변적인 날이다.  
《김일성장군 만세!》  
《조국해방 만세!》  
이 땅의 방방곡곡은 해방의 기  
쁨으로 설레었고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은 삼천리강토를 진감하  
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최고  
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망국은  
순간이요 복국은 천년이라는것이  
항일혁명 20년의 로정을 걸으면  
서 자신께서 얻으신 하나의 중요  
한 교훈이었다고 하시었다.

나라를 빼앗기는 위위도 그  
것을 다시 찾는 일은 그처럼 어  
렵고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깊은  
뜻이 담긴 교시이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겨 장장  
40여년, 그 나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우리 겨레가 흘린 피눈물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망국의 치욕을 씻어보려고 남  
너로소모두가 눈물겨운 국제보  
상운동도 벌였고 민족적의분을  
안고 의병투쟁과 독립군활동도  
벌렸다. 또 유미령강들에게 기  
대를 가지고 청탁도 해보았으  
며 3.1인민봉기, 6.10만세시위  
투쟁과 같은 대중적반일투쟁도  
벌리었다. 그러나 그 모든것  
으로도 독립의 뜻을 이룰수 없  
었다.

2천만 조선동포가 망국노의 비  
참한 운명을 강요당하며 길가의  
조약돌처럼, 마가들의 락업처럼  
짓밟히던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나라라는 투쟁의 길에 나서시  
었다.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날  
강도 일제와 사생결단을 해야겠  
다는 결심을 다지시고 광복의 천  
리길을 오르신 수령님의 거  
룩한 모습이 어려운다.

만경대를 떠나 압록강가에 이  
르시어 조국의 표적이 될수 있  
는 조약돌 하나를 손에 쥐고이  
는 그 누군가가 지은 《압록강  
의 노래》를 부르시며 수년많은  
조국산천을 밟으며나 뒤돌아보  
시며 압록강을 건너신 수령님이  
시다.

후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나  
는 그때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눈앞에 그려보며 조선이 독립하  
지 않으면 당시 돌아오지 않으리  
라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셨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었다.

민족의 자주권은 오직 그 민족  
자체의 주체적인 노력과 불굴의

투쟁에 의해서만 보존하고 쟁취  
할수 있다는 력사의 철리를 깊이  
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조국해방의 유일한 길은 무  
장투쟁을 벌리는데 있다는 사상  
을 제시하시고 항일대전을 선포  
하시었다.

반일인민유격대가 첫 총성을  
울리었을 때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지 못하였다.

당시 일본제국주의는 자기 령  
토의 몇십배나 되는 광대한 땅  
을 가진 대국들과 겨루어 이긴  
《신홍군사강국》이었다. 따라  
서 일제를 라도한다는것은 곧 세  
계적으로 공인된 군사력과 광성  
적인 《황도정신》을 라승하고  
《명치유신》 후 근 70년동안 배  
를 불리운 대일본제국을 겨꾸려  
프린다는것을 의미하였다. 외부  
적지원도 국가적후방도 없이 압  
도적으로 우세한 적에게 도전한  
다는것은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였다.  
하지만 전설적명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제의 그 모든 우  
세를 혁명군대의 정치사상적, 전  
략전술적우세로 격파하시었다.

그이의 탁월한 전법과 령활무  
쌍한 지략에 의해 수많은 대소  
전투마다에서 《무적황군》의  
《신화》는 여지없이 깨어져나  
갔다.

일제가 구축한 《금성철벽》을  
바람처럼 날아들어가는 조선은 죽  
지 않고 살아있다는것을 과시한  
보천보전투, 유격대의 신비한 망  
원전술에 걸려 저들끼리 맞붙어  
죽일대기하였다는 소덕수전투,  
유인기만전술과 속영지야간습격  
전으로 적들을 혼비백산케 한 곰  
의골어귀전투, 유명한 《호백대  
포격》이야기를 낳은 간삼봉전  
투...

위대한 수령님의 령활무쌍한  
전법에 너무나 기겁한 일제는

그이의 존함만 들어도 벌벌 떨었  
다. 반면에 우리 겨레는 그이를  
전설적인 항일의 명장으로 우리  
르면서 백두산에서 울려오는 원  
추격명의 총소리에서 조국해방  
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가다듬  
게 되였다.

일제가 《창해일숙》이라고 하  
였던 항일유격대가 령하 40℃  
를 오르내리는 만주의 흑한속에  
서 15년동안이나 발톱까지 무장  
한 강적과 싸워이길수 있었던것  
은 인민이라는 강력한 생세가 있  
었기때문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  
쟁을 벌리실 때 승리의 결정적담  
보로 여기신것은 바로 전체 조선  
민족의 뭉친 힘이였다.

인민이 국가이고 후방이며 정  
규군이다.

인민이 우리의 힘이고 지혜이  
며 생명이다. 인민을 믿고 인민에  
게 의거하며 인민을 발동시켜 싸

워야 한다. 이런 위대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망국의 설움과 이증삼  
중의 착취와 억압속에 허덕이는  
인민대중을 민족해방성전으로 불  
러일으켜 온 나라에 전민항전의  
불길에 활화산같이 라번지게 하  
신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항일전쟁사와 더불어 수령님께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모진 고  
초를 겪으시며 헤쳐오신 항일의  
혈전만리길, 눈보라만리길을 우  
리 겨레는 천년세월이 흘러도 잊  
지 못한다.

추위와 굶주림, 끈질긴 적의  
추격과 포위속에서 촉한을 만나  
시었던 천고령의 눈보라행군, 민  
족대단결의 위대한 정열로 마  
련하신 조국광복회창립, 모진 시  
련을 끝끝내 이겨낸 고난의  
행군...

그 자욱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의 의지가 어려였다.

정녕 그이 아니시었다면 어떻  
게 다 죽었던 우리 민족의 운명  
이 구원될수 있었고 세계에 존엄  
과 위용을 떨치는 오늘의 조선을  
말할수 있었는가.

영생 불멸의 혁명승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구절이 말  
해주듯 장백산 줄기줄기와 압록  
강 굽이굽이마다에 항일선열들의  
피어린 자욱이 어려여어 오늘  
도 이 노래를 부르며 간고한 항  
일혈전사를 눈물겹게 되새겨보  
는 우리 겨레이다.

전쟁 도란에 빠졌던 우리 민족  
에게 재생의 새봄을 안겨주시고  
자비멸렬되어가던 이 나라의 명  
맥을 다시 이어놓으시어 민족만  
대의 번영과 통성의 새 기원을 열  
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반만년 우리 민족사에서 처음  
으로 높이 모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영웅이시다.

항일대전의 승리로 조국해방의

민족사적사변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더듬으  
며 우리 민족이 다시금 절감하는  
철의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을 때에만 인민대중은 자기 운  
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  
척해나가는 위대한 인민으로 될  
수 있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이룩하신  
조국해방의 빛나는 업적은 무  
적의 총대로 나라와 민족의 존  
엄을 수호하고 빛내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련면히 이  
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 독창적  
인 선군정치를 펼치시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인민의 행복을  
굳건히 수호하시었다. 그이의  
탁월한 령도밑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이 승리적으로 결속되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튼튼한 토  
대가 닦아지게 되였다.

오늘 공화국의 존엄과 위  
상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최상의 경지에 올라왔다.  
세계인문들은 《김정은위원장  
이시야말로 세계정치를 주도해가  
시는 전략국가의 지도자》 이시라  
고 하면서 누구도 예상하기 어  
려운 조선반도와 세계정세추이  
의 중심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서세신다고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돌아볼수록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부러놓으신 강성변영의 씨앗들이  
하나하나 풍만한 열매를 맺고  
공화국이 세계가 공인하는 사  
회주의국가로 존엄떨치고있는것  
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해방,  
조국건설, 강국건설의 고귀한 업  
적을 끝없이 빛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령도  
의 결실이다.

탁월한 정치실력과 백승의  
령도, 불멸의 업적과 위인적품목  
이요 영항력있는 국가지도자, 현  
대정치적 거성으로 세인의 칭송  
과 흠모를 받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것은 우리 겨레의  
가장 큰 영광이고 행운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계승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계시어  
아버이수령님의 조국해방업적은  
길이 전해질것이며 공화국은 머  
지않아 통일되고 강성변영하는  
국가로 세상에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대전의 력사적승리는 삼천리강토에  
조국해방, 민족제생의 력사적사변을 안  
아왔다.

8.15해방을 맞이하였을 때 온 강  
토에 굽이친 민족의 환희는 이루 형  
언할수 없었다. 하지만 해방의 열  
광속에 울고웃으며 기쁨을 나누던  
우리 겨레가만도 조국해방이 곧 국  
토반환과 민족분렬로 이어지고 그  
민족분렬의 비극의 력사가 70여년  
이 되도록 지속되리라고 예상한 사  
람은 아무도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외세에 의  
해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  
우시고 일관적에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였으며 조국통  
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  
시였다.

그이께서는 외세의 남조선강점과  
안락의 분열세력의 반통일책동이  
계속되는 복잡한 어려운 정세속  
에서도 시종일관 통일로선을 확고  
히 견지하시고 온 겨레가 조국통일  
운동을 일거차게 벌리도록 정력적  
으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남조선에  
한 시기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하  
시어 사대매국세력의 민족분열책  
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온 민족이 떨쳐나서도록 하시였다.

오래동안 격백상태에 있던 북과  
남사이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  
주시고 조국통일3대원칙을 주요내  
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을 발표하  
도록 하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고  
내외분열주의세력의 책동에 단호한  
타격을 가하시며 친진족을 통일애  
국의 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분  
도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실 의  
지를 지니신 아버지수령님께서서  
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민  
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온  
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  
아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립방  
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조국통일  
3대원칙으로 정립하시고 민족대단결5대  
방침을 비롯한 탁월한 사상과 로선들을  
내놓으시어 민족이 나아갈 통일의 앞길

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 는 두차례의 력사  
적인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채택케 하시어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  
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여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 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내외반통일세력들의 책동으로 전  
쟁집경으로 치닫던 조선반도에서  
민족적화해와 평화변영을 위한 새  
시대가 열리게 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  
고 자주통일의 돌기구를 열어나가  
기 위한 주동적이며 과감한 북남관  
계대전환방침을 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는 관점에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마련하시어  
평화변영과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놓으시였다.

력사의 그날 《조선반도의 평화  
와 변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이 채택된것은 전민족의 대단결로  
이 땅위에 기어이 존엄되고 부강변  
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민족애  
와 확고한 통일의지, 대범한 결단  
과 통큰 야량이 안아온 고귀한 결  
실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는 지난해 가  
을에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마련하  
시고 9월평양공동선언을 채택하도  
록 하시어 조선반도의 평화변영호  
를 더욱 힘있게 추동해주시였다.

지난 한해동안에 세차례의 북남  
수뇌상봉과 회담을 마련하시어 북  
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에서 새로  
운 전환적국면을 펼쳐주시고 민족  
의 앞길에 평화와 통일의 밝은 미래  
를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  
나큰 업적은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지게 될것이다.

대를 이어 절세의 위인들을 모신것은  
우리 민족이 받아안은 남다른 행운이고  
금지이다.

위인을 모시어 잃었던 나라도 다시  
찾은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위업수행의  
밝은 전도를 내다보며 신심드높이 통일  
대행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 자위의 군력을 억척같이 다져가시며

오늘 공화국은 위대한 평양의  
손길아래 나라와 인민의 존엄  
과 자주권, 조선반도의 평화를  
민족적하게 수호할수 있는 불  
패의 군력을 다져나가고있다.

일마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신형전술  
결심이며 의지이다.  
유도란 위력시위발사가 참관하  
신 소식은 인민들의 가슴마다  
에 무진각강한 군력을 지닌 공  
화국의 공민된 긍지와 자부심  
을 깊이 새겨주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6일 새  
벽 공화국의 서부작전비행장에  
서 발사된 전술유도탄 2발은 수  
도권지역 상공과 중부내륙지대  
상공을 비행하여 조선통해상의  
설정된 목표점을 정밀타격하였  
다. 새형의 전술유도무기체계  
의 신뢰성과 안정성, 실전능력  
이 의심할바없이 검증된 위력  
시위발사는 공화국의 무장장비  
발전수준의 일면을 다시금 과  
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는 신형

오늘 자력갱생은 공화국의  
국력으로, 국력으로 되고있다.  
자력갱생은 항일의 나날 백  
두밀림에서 선열들이 쭉겨들  
었던 기치이다.  
지금도 조용히 귀기울이면  
밀림속병기창에서 울리던 자  
력의 마치소리가 들려오는듯  
싶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믿을것은  
남의 원조가 아니라 자기 힘  
뿐이라는 신념을 간직하고 밀  
림속의 병기창에서 일제와 맞  
서싸울 무기를 자체로 만들어  
냈다.

돌이켜보면 일제침략자들  
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이후  
군자금을 모아 무기를 마련하  
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동남자  
루를 메고 남의 나라를 찾아가  
다면서 도움과 방조를 구걸한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독립의 진정  
한 길이 아니었다. 차제것은  
의 실패와 모욕, 좌절이었다.  
독립군의 경험은 그러했고  
만국평화회의장에 부러진 피  
의 교훈이 그것을 응변해주

전술유도탄 위력시위발사가 목  
적화한바대로 만족스럽게 진행되  
었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군사적행동이 미국과 남  
조선당국이 버려놓은 합동군사  
연습에 적중한 경고를 보내는  
기치가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지난 7월에 신형전술유도무  
기 위력시위사격을 조직지도하  
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는 최  
근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이 저  
들의 명줄을 걸고 필사적으로  
끌어들어가고있는 최신헌정비  
들은 감출수 없는 공격형무기  
들이며 그 목적자재도 변명할  
여지없이 숨길수 없는것이라  
고, 우리 국가의 안전에 무시  
할수 없는 위협으로 되는 그것  
들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초  
기에 무력화시켜 쓰라 버린 과  
철폐 만들기 위한 위력한 물리  
적수단의 부단한 개발과 실전  
배비를 위한 시험들은 우리 국  
가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급선  
무적인 필수사업이며 당위적인

일이었다.  
그리면서 남조선당국자들  
이 세상사람들앞에서는 《평화  
의 약속》을 연출하며 공동선  
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  
지작거리고 뒤돌아앉아서서 최  
신헌정비들의 위대한 정열로 마  
련하신 조국광복회창립, 모진 시  
련을 끝끝내 이겨낸 고난의  
행군...

그 자욱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의 의지가 어려였다.

## 연길폭탄정신은 오늘도

창에서 마지, 모루, 줄칼과  
같은 소도구로 일제를 전물  
케 한 연길폭탄을 만들어내  
게 했다.

자력갱생의 신념과 의지는  
항일전의 전 력사를 관통한 기  
본정신으로 되어 《아시아의  
맹주》라고 호언장담한 일제  
를 무찌른 힘의 원천이 되었고  
자주, 자강을 좌우명, 생명  
선으로 하는 준세고 강한 인민  
을 키웠다.

연길폭탄을 만들어 일제의  
100만대군과 맞서싸운 그 자  
력갱생의 기상이 오늘도 변함  
없이 이어지고있다.

함등으로 된다고 하시였다.  
그러면서 남조선당국자들  
이 세상사람들앞에서는 《평화  
의 약속》을 연출하며 공동선  
언이나 합의서 같은 문건을 만  
지작거리고 뒤돌아앉아서서 최  
신헌정비들의 위대한 정열로 마  
련하신 조국광복회창립, 모진 시  
련을 끝끝내 이겨낸 고난의  
행군...

그 자욱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의 의지가 어려였다.

오늘 자력갱생은 공화국의  
국력으로, 국력으로 되고있다.  
자력갱생은 항일의 나날 백  
두밀림에서 선열들이 쭉겨들  
었던 기치이다.  
지금도 조용히 귀기울이면  
밀림속병기창에서 울리던 자  
력의 마치소리가 들려오는듯  
싶다.

항일유격대원들은 믿을것은  
남의 원조가 아니라 자기 힘  
뿐이라는 신념을 간직하고 밀  
림속의 병기창에서 일제와 맞  
서싸울 무기를 자체로 만들어  
냈다.

돌이켜보면 일제침략자들  
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이후  
군자금을 모아 무기를 마련하  
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동남자  
루를 메고 남의 나라를 찾아가  
다면서 도움과 방조를 구걸한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독립의 진정  
한 길이 아니었다. 차제것은  
의 실패와 모욕, 좌절이었다.  
독립군의 경험은 그러했고  
만국평화회의장에 부러진 피  
의 교훈이 그것을 응변해주

엄은 하늘에 닿았다.  
적지 않은 나라들이 전란의  
참혹속에 빠져 고통을 겪고있  
는 지금 공화국인민이 자기의  
행복을 마음껏 창조해나가고있  
는것은 군력강화를 나라와 민  
족의 율명과 직결된 제일국사  
로 내세우시고 정력적으로 이  
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강철의 담력과 굴함없는 공  
격정신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문불류의 애국헌신  
에 의하여 그처럼 짧은 기간에  
인민군대의 정치군사적위력은  
더 한층 강화되었으며 공화국  
은 평화수호의 위력한 보검을  
갖춘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는 올  
해에도 인민무력성을 추상방  
문하시어 하신 열설과 조선인  
민군 제5차 총대장, 총대정치  
지도원대회에서 하신 연설, 인

민군부대들의 화려타격훈련과  
새로 개발한 무기체계들의 시  
험사격들을 지도하시며 하신  
말씀들에서 인민군대의 전투  
력을 일층 강화하며 무장장비  
의 현대화를 더욱 다그치는데  
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인민군장병들은 훈련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하늘,  
땅, 바다의 그 어디에서든 백  
만 싸우면 백만 다 이기는 무  
적강군의 위용을 높이 떨치시  
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신 고귀한 유산으로 물려  
주신 자립적국방공업의 토대는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의  
슬하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영  
웅적조선인민군과 같은 불패  
의 무력을 가지고있는 공화국  
은 오늘 위대한 나라로 온 누리  
에 빛을 뿌리고있다.

생을 체질화하고 애국의 열의  
로 피뎠은 인민의 창조적힘은  
공화국의 귀중한 전략적자원  
으로 되고있다.

오늘 이 땅의 인민들이 가  
슴마다에 더욱 깊이 새기는  
진리, 그것은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것이다. 자력갱생  
이 국력으로, 국력으로 되고  
있는 여기에 공화국의 진보습  
이 있다.

국가도 없고 정규군의 지원  
도 없는 최악의 조건에서 맨  
손으로 무기를 만들어 발동  
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타  
승하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  
업을 이룩하였는데 지금처럼  
자립의 튼튼한 경제체제대개  
있고 일일생활의 거대한 힘  
이 있으며 최첨단으로 향해  
가는 과학기술의 위력이 있  
는데 무엇인지를 해하지 못  
했는가.

평화한 미래는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나라의 부강변영, 인  
민의 더 큰 행복을 마련해가는  
공화국에 있다.

본사기자 리경월